

지역에 따른 기생충감염
실태, 아직도 심각!!



주 경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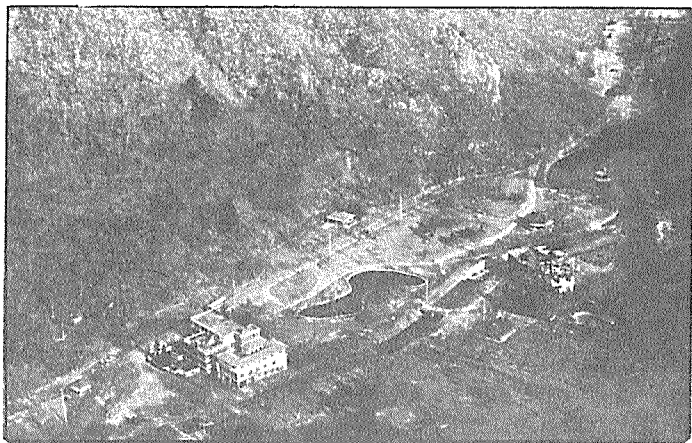
기생충병은 농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전염성 질환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성 질환이다. 특히 회충, 편충 등의 소위 토양매개성 윤충감염은 우리들의 전통적 영농방법, 즉 인분을 비료로 사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형태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70년 이래 기생충예방법(1966)에 의한 집단검변 및 치료사업, 주택과 상하수도 시설의 개선 및 확충,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의 급증으로 인한 토양오염의 상대적 감소,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 및 경제발전에 따른 위생상태의 개선 등으로 토양매개성 윤충류의 감염률은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격감되었다.

예를 들어 회충 감염의 경우 보사부 및 한국건강관리협회의 1986년도 감염현황자료를 보면 1971년의 54.9%에서 2.1%로 크게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전래의 식습관으로 인해 감염되는 패류 및 식품매개성 기생충, 곤충매개성 기생충, 또는 요충과 같이 거의 접촉성에 가까운 기생충병의 변천양상은 또 다른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즉 간흡충이나 요꼬가와흡충처럼 민물고기를 중간숙주로 하여 감염되는 기생충질환의 경우는 감염률이 전혀 감소되고 있지 않으며 육류매개성인 유·무구조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률이 감소되고 있기는 하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요충의 경우에도 역시 감염률의 감소는 매우 완만한 것 같다. 더구나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됨에 따라,



전반적 기생충 감염율은 감소되는 반면 다른 기생충 질환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감염율을 나타내는 특정 기생충 질환이 문제가 된다.

또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의 양상도 많이 달라져 해산어류를 생식하는 기회가 크게 늘어나 과거에는 제한된 지역에서만 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던 광절열두조충 감염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니사키스 감염도 최근에 보고례가 부쩍 늘었다.

즉 전반적인 기생충 감염률은 감소되어 나가는 반면 또 다른 기생충질환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감염률을 나타내는 특정 기생충 질환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지역적으로 감염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기생충 질환을 중심으로 그 질환의 감염경로 및 증상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1. 간흡충

간흡충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밟아 감염된다.

간흡충이 우리 몸안에서 산란한 충란이 대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설되고 근처에 있는 하천, 연못 등으로 흘러들어가 왜 우렁의 몸을 거쳐 민물고기의 근육에서 피낭유충이라는 형태로 있게 된다. 피낭유충으로 감염되어 있는 민물고기를 날로 먹으면 간흡충에 감염되게 된다.

중간숙주인 민물고기는 대부분 잉어과에 속하는 어종인데 참붕어, 납지리, 긴물개, 모래무지, 참중고기 등을 열거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민물고기가 감염되어 있으므로 민물고기를 날로 먹어서는 안된다. 이와같이 간흡충의 감염은 하천과 긴밀한 관계에

66 간흡충의 감염은

하천과 긴밀한 관련이 있으므로

하천유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서 높은 감염율이 나타난다.

'81년 강 본류에서 6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낙동강유역 40%,영산강

유역 31%, 섬진강 유역17%등 전국평균 2.6%에

비해 높은 감염율을 나타내었다.



있으므로 하천유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서 높은 감염율을 나타내고 있다.

1981년에 나온 한 보고에 의하면 강 본류에서 6km 이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낙동강유역 40%, 영산강유역 31%, 섬진강유역 17%, 남한강유역 16% 등의 성적을 나타내어 당시의 전국 평균 2.6%에 비해 매우 높은 감염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경남 일대의 낙동강유역 주민의 감염률은 40% 이상으로서 중년기의 남성은 거의 모두 감염되었다고 보아질 정도이다. 대체로 적게 감염되었을 때에는 만성적인 피로감, 능률의 저하등이 주요 문제점이 되며 많이 감염되면 담도폐쇄, 황달 등의 증상이 뒤따르게 되고 간암과의 관련설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북한강 유역을 기점으로 한강 이북에는 왜우렁의 서식조건이 좋지 않아 간흡충이 생활환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의 가부를 논하기 이전에 민물고기를 생식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의식을 갖지 않는 한 간흡충의 감염은 근절될 수 없다.

2. 요꼬가와흡충

우리가 요꼬가와흡충에 감염되는 것은 대부분 은어회를 먹어 감염된다. 은어의 요꼬가와흡충, 피낭유충 감염률은 지역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경남 하동군, 구례군 일대의 섬진강 유역 은어는 100% 감염되어 있다고 보아 무리가 없다.

제주도의 것도 90% 이상 감염되어 있다고 하며 밀양근처의 낙동강, 경북 포항의 형산강 은어도 40% 이상이 감염되어 있으며 동해안으로 흘러드는 하천 대부분의 은어가 요꼬가와흡충에 감염되어 있다.

다슬기와 은어의 분포양상에 따라 대체로 서해안 쪽으로 흘러드는 하천유역에는 요꼬가와흡충 감염자가 드문 것이 통례이다. 요꼬가와흡충은 인체에 감염되어 심한 병변을 일으키지 않으나 장점막손상 및 만성설사 등 소화장해의 원인이 된다. 최근에는 서울에도 은어회집이 등장하는 등 문제점이 전혀 인식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계몽도 필요하다.

3. 유·무구조충

유·무구조충은 지방에 따라 촌백충, 촌충이라고 부르는, 길이 2cm 정도의 마디가

길게 이어진 4~8m 정도 크기의 기생충으로서 무구조충은 마디가 자동적으로 항문으로 배출되어 심한 불편감을 일으키고 유구조충은 애벌레의 뇌 침입으로 간질발작, 뇌막염증상을 일으키는 무서운 기생충질환이다.

이 기생충은 각기 돼지, 쇠고기를 날로 먹어 감염되며 돼지, 소는 사람 몸에서 나온 충란을 먹어 이 기생충의 애벌레를 갖게 된다. 따라서 유·무구조충의 유행지역은 쇠고기, 돼지고기를 육회로 먹는 식습관이 전통적으로 보편화 되어 있는 지역과 예로부터 사람의 대변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관행이 있던 지역에서 높은 감염률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육회를 먹는 식습관이 비교적 다른 지방보다 높은 곳은 전·남북의 일부 지방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 그리고 제주도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사람의 대변을 돼지의 사료로 쓰는 독특한 형식의 소변형태를 최근 까지도 일부 유지하고 있으며,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덜익혀 먹거나 날로 먹는 식습관이 남아 있어서 유, 무구조충의 감염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지역으로 손꼽을 수 있다.

4. 사상충

만성적으로 감염되어 상, 하지의 피부를 변형시켜 상피병이라고 일컫는 질환을 야기하는 기생충으로서, 좁은 지역에 유행지를 형성하고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풍토병의 하나이다. 사상충의 애벌레는 밤에만 혈

액에 나타나 야간흡혈성의 특정 모기에 의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북의 동북부, 전남의 해안지역, 제주도의 남제주군 일대에 유행지가 있고 그 중에서도 제주도의 감염률이 가장 높았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5. 기타 기생충질환

광절열두조충은 해산어류를 회로 먹어서 감염되며 동해안 일대의 주민 대변검사에서 충란이 발견되는 예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교통이 좋아지고 경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바닷고기를 회로 먹는 습관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실제 이 기생충의 감염자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된다.

아니사키아시스라는 위, 장병변을 일으키는 기생충병도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해산어류를 회로 먹어 감염되며 경북 포항 일대의 오징어회가 주 감염원으로 생각된다. 이 지역 및 제주도에서 최근 많은 감염자가 보고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양매개성 기생충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기생충감염률은 격감하였으나 아직도 요충을 비롯하여 집단관리를 해야 할 기생충질환이 많을 뿐더러 지역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감염률을 보이는 기생충질환이 있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고려의대 기생충학 교실〉